

# 당연한 얘기



김민소작의  
당당평평

사람이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 는 이유라고 한다.

살면서 몸소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많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 반면 상대의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적잖이 어려워 한다. 사실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얘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경청하도록 우리는 대부분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도 때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모든 일에는 불변의 고유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시시각각 변해야 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가 얘기한 만큼 내 자신도 그만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아는 사이는 그냥 익숙한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친

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필자는 말 많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역시 필자의 경우 항상 이곳저곳 많은 연락을 받는다. 그나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들어줄 수 있지만 바쁜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연락하는 것은 적잖은 고통이고 스트레스이기도 하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모든 관계에서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떤 관계도 관심도 아니다. 상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시간을 빼앗고 정서적으로까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슨 인관관계인가.

서로에게 스트레스와 공해만 될 뿐이다. 인간은 역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성을 지니고 함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법이다. 남이 유쾌한 일은 나도 유쾌한 일인 경우가 많다.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답답한 경우는 대동소이하다. 인간사 '희노애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은가.

상대가 자신의 주장은 '리스닝'을 하기 원하며, 내 자신은 상대의 얘기에 '히어

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극히 사실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논쟁과 분쟁 및 갈등과 다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그것은 또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 하고 사회적·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본능에만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직립보행과 불을 사용 등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얼마나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며 적절한 처신과 연행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편리해질 수 있지만 그 몸을 지배하는 생각과 사고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때로는 응용되고 발전된 모든 것을 떠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기도 한다.

몸이 편할수록 우리의 사고는 퇴보한다. 육체적 삶이 윤택해질수록 우리의 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곤 한다. 육체적 편리함과 정신적 성숙함 중 구태여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각자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풀리 정치연구소장



KB국민은행,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동아리방 조성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원목동 아트센터에서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KBS미디어, 푸른나무 청예단, 열린의사회 등과 함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 하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와 KB국민은행, 시민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마케팅부문, 사회공헌 '1004 활동' 전개  
NH농협은행은 마케팅부문 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시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영어 일시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마케팅부문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농업인을 찾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기 위해 1구좌에 1004원씩 희망하는 만큼 매일 기금을 적립해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NH 마케팅부문 사회공헌 1004 봉사단'을 만들었다. /NH농협은행



신세계푸드, 아동복지시설 찾아 봉사활동  
신세계푸드는 임직원들이 지난 2일 광주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애육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조리사, 위생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푸드 임직원 20여명은 애육원 원생 50여 명에게 크림파스타, 오므라이스 등을 직접 조리해 나누는 식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푸드



오뚜기 '23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개최  
오뚜기가 지난 2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스위트홈 제23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150팀의 가족들이 자유 경연과 지정 경연, 두 부문으로 나누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또 참가 가족들은 열린 요리 경쟁과 더불어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도 함께 열렸다. /오뚜기



대상 청정원, 요리 '노하우유크 시즌5' 성료  
대상 청정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청정원 요리공방에서 진행된 '노하우유크' 시즌5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청정원 노하우유크는 요리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행사다. 지난 시즌4에서는 맥주 푸드페어링 노하우와 쿠킹클래스로 행사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상 청정원

# 여성이 비주류?



기지수첩  
신원선  
(온라인부 엔터팀)

아직도 성별이 주류와 비주류를 결정짓는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이들이 있을까. 주류와 비주류를 경계는 누가 결정짓는 걸까. 개인과 그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일 뿐 그 누구도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남주 작가는 한명이지만, 그의 책을 읽은 독자는 여럿이었고 개개인들이 받은 울림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페미니

즘 운동, 미투 운동을 작가 혼자 이뤄냈다고 할 수 없지만, 아찔한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해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입에 올리는 순간 "여대 다니던 시절 운동권이었는데"라는 말과 따가운 시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화와 영화가 급부상했다.

지난해 개봉한 '미생: 사라진 여자'(감독 이연희)는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보모를 추적하는 5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냉담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다. 영화의 스토리도 영화를 연출한 감독, 두

주연 배우 엄지원, 공효진 모두 여성인, 그야말로 여성영화였다. 올초 개봉해 많은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한 '리틀 포레스트'(감독 임순례, 김태리 주연) 역시 여성이 이끌어가는 영화다. 여성이 남성위주의 작품에서 소비되고 그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는 주체적인 시각을 지닌 관객들이 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떠한 문화 콘텐츠도 접하더라도 이제는 젠더 의식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조남주 작가의 신간 '그녀 이름은'이 출간됐다. '82년생 김지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욱 당당하고 과감하게 펼쳐진다. 이번 책의 파급력은 또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된다. /tree6834@metroseoul.co.kr

# 금감원, 몽골 금융당국 직원 실무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몽골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증권 및 보험 감독·검사부서 소속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수견연수(OJT)를 실시한다

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흥국의 금융감독 발전을 지원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금융당국 직원에 대해 OJT를 진행

해왔다. 이번 연수는 오는 7월 20일까지 7주간 증권·보험 감독 및 검사 실무연수를 진행하고, 종합적이고 현장감 있는 연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10여개 유관기관 방문견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인사

- ◆환경부 ◇ 국장급 승진 △ 화학물질안전원장 류연기 ◇ 과장급 전보 △ 자연보전정책관실 국토환경정책과장 이영석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장 조은희
- ◆세종연구소 △ 부소장 이면우 △ 연구기획본부장 정성장 △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 정재홍 △ 교육연수본부장 박지광 △ 교육연수본부 부본부장 민준기 △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 안보전략연구실장 우정엽 △ 통일전략연구실장 이성현
- ◆메트로신문 △ 정책사회부 오진희 △ 산업부 안

병도 △ 산업부 박찬길 ◇ 전보 △ 산업부 김유진 △ 유통&라이프 신원선 △ 유통&라이프 김민서

## 부음

- ▲김옥경 씨 별세, 황재우(사업) 씨 모친상, 안건희(이노션월드와이드 사장) 씨 장모상 = 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5일, 02-3010-2000.
- ▲이재기 씨 별세, 이연수(전 벨라루스 주재 대사) 씨 부친상 = 2일 오전 8시 15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대전현충원. 010-

-4822-0228.

<b>metro 메트로미디어</b>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창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02)721-9861
광고인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63호